

2016년 2학기 제1차 과제 표준답안

I.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

1. 공개시장운영

- ☐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통화량 및 금리 수준을 조절
- ☐ 공개시장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활용의 방법으로 운영
- ① 증권매매란 국공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을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으로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면 자금이 시중에 공급되어 통화량 증가하며 반대로 보유 증권을 매각하면 자금이 환수되어 통화량 감소
- 증권매매대상 증권은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과 대상증권의 신용리스크를 감안하여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으로 한정
- 증권매매의 종류에는 단순매매와 일정기간 이후 증권을 되사거나 되파는 환매조건부매매(RP; Repurchase Agreements)가 있음
- 단순매매는 유동성이 영구적으로 공급 또는 환수되어 장기 시장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용

- 따라서 증권매매는 환매조건부매매 거래(RP, 통상 7 일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또한 2011.8 월부터 공개시장에서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을 빌려서 매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 규모를 늘릴수 있어 통화량 조절 능력이 제고됨
- ②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무증서로서 금융기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매하며 매도시 통화량이 감소하고 매수(환매)시 통화량이 증가함
- 통화안정증권은 만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책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기본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됨
- * 90 일, 180 일, 1 년, 2 년
- ③ 통화안정계정은 은행을 대상으로 단기예금(28 일물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며, 2010.10 월 이후 부터 활용되고 있음
- 은행에 예금을 판매하는 경우 통화량이 감소하며, 만기가 되어 예금이 인출되는 경우 통화량이 증가함

<관련법규>

한국은행법

제4절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 등

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 또는 대차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국채
2.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 기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①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할 수 있다.

③통화안정증권의 이율·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한국은행은 환매 또는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계정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3.29.]

2. 여수신제도

□ 중앙은행이 개별 은행을 상대로 대출(여신)을 해 주거나
예금(수신)을 받는 제도

▷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대출을 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2008년 3월 예금제도를 도입하여 여수신
제도로 확대·개편

□ 여신제도

- 자금조정대출 : 금융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금부족
발생시 발생한 부족자금을 대출

- 금융중개지원대출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자금 지원

- 일중당좌대출 : 일시적인 부족자금 지원

(어음재할인, 증권담보대출)

- 긴급여신 : 금융기관이 긴급한 자금 필요성 발생시 지원

- 영리기업 특별대출 :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 수신제도

자금조정예금 : 은행의 일시적인 여유자금 수신(만기 1일)

관련법규 : 한국은행법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준비 <개정 2011.9.16.>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수입)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기타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2.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지급준비제도

□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자로부터 수령한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적립하는 제도

▷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 조절

▷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 저하

▷ 일정규모의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당좌예금으로 예치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지급결제를 원활히 하고 단기시장금리를 안정시킴으로써 금리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역할

*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함에 따라 지급결제에 소요될 자금을 차입하려는 수요를 줄여줌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시장(콜시장)에서의 금리가 안정

□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 지급준비율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 ~ 7%로 차등화

* 지급준비율은 최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규모별로 결정

- 한편,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2월 17일부터는 기존 예금채무 이외에 일부 금융채에 대해서도 지급준비율을 부과

-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을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당좌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필요지급준비금의 35%까지 금융기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

관련법규 : 한국은행법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② 지급준비율은 제5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1.9.16.>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저한 통화팽창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가액에 대하여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전액까지를 최저지급준비금으로 추가로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9.]

II. 예금자보호제도

- 1)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
- 2)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 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 324 조 제 1 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예금자보호법 제 2 조 제 1 호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
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
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와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

□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일시적 자금 예치(주식 또는 채권 납입자금 등)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 은행이 발행하는 어음으로서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어음을 기초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함

- 저축성예금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일정 횟수 납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취급 상품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0 조제 1 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 제 330 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보험회사 취급 상품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종합금융회사 취급 상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 Cash Management Account 의 약어로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어음관리계좌라고 하며 예치된 자금을 CD,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한 후 예금주에게 그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예금자보호법 제 2 조 제 2 호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적금·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填)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

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부금·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4)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됨

◎ 예외 :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됨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 법 제 32 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 제 1 항에 따른 보험금은 1 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 18 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 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 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개정 2016.3.11 >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가입한 사람에게 예금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적립금 등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하여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적립금 등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등에 가입한 사람의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Ⅲ. 아롱이의 주식투자

1) 아롱이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가서 실명확인을 한후 계좌를 개설해야 함

2) 우리나라는 주식가격 상·하한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한가 폭은 전일종가의 +30%이고 하한가 폭은 -30%임

따라서 주문당일 상한가는
117,000 원(9 만원×130%)이고 하한가는
63,000 원(9 만원×70%)임

즉, 2016.9.27. A 사 주식가격은 117,000 원까지 오를 수 있으며, 63,000 원까지 내려갈 수 있음

3) 8시부터 주문을 할 수 있음

4) 전화, 인터넷,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주문할 수 있으며, 직접 증권회사에 가서 주문할 수 도 있음

5) 105 주(1 천만원 ÷ 9 만 5 천원 = 105.26)

※ 매매주문단위가 1 주 단위이므로 1 주미만은 주문할 수 없음

- 6) 주문할 수 있음. 왜냐하면, 호가(주문가격)
가격단위에 관한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5 만원이상
10 만원 미만의 주식의 경우 100 원단위로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임
- 7) 현재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율은 40%이므로
아롱이는 1 천만원을 증거금으로 모두 사용하는
경우 2 천 5 백만원($1 \text{ 천만원} \div 40\%$)의 주식
매수주문을 할 수 있음
- 8) 우리나라 주식매매제도는 계약체결후 3 일째 되는
날(영업일 기준) 주식과 주식매수자금의 결제가
되는바, 주문일이 9 월 27 일 이므로 9 월 29 일
주식을 소유하게 됨